

## 주소가 필요한 20곳, 국민 여러분 투표로 결정됩니다

- 6월26일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최종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실시
- 공공·민간기관 의견수렴으로 선정한 5개 분야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20종 선정

-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(월)부터 6월 26(월)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  -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,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.
-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(장소)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.
  -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, 비상급수시설,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(14종)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되었다.
  - 올해는 우체통, 공중전화부스,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, 자전거주차장,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된다.

▶ '19.~'22.실적(14종) : 육교승강기, 둔치주차장, 지진옥외대피장소, 버스정류장, 택시승강장, 줄음쉼터,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, 소공원, 어린이공원, 비상급수시설, 인명구조함, 드론 배달점, 주차장, 전기차충전소 → 총 14종, 약 228,000개 부여 완료

※ 사물주소 활용 :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위치검색 가능

-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,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,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.

○ 5개 분야는 재난안전, 경제·산업, 도로·교통, 생활여가, 문화관광 등이다.

분야	사물주소 부여대상
재난·안전	• 자동심장충격기, 소화전, CCTV, 제설함, 안심무인택배함, 긴급제동시설
경제·산업	• 현수막 게시대, 푸드트럭 허가구역, 영농폐기물 수거장
도로·교통	•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, 휠체어리프트, 화물차전용시설
생활·여가	• 무인민원발급기, 무더위쉼터, 재활용 분리수거함, 흡연부스, 낚시터, 현금인출기, 어린이 놀이터, 무인도서관, 무인물품보관함, 먹는물 공동시설, 반려동물공원
문화·관광	• 보호수, 야외공연장, 생태습지

□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 누리집(www.mois.go.kr) 또는 주소정보누리집(www.juso.go.kr)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5개 이하로 선택하여 투표하면 된다.

\* (참여방법) 누리집(행안부, 주소정보), SNS채널(행안부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을 활용한 QR코드 접속으로 온라인 투표

□ 최종 선정결과는 7월 14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종은 2024년부터 단계별로 주소가 부여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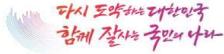
□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, 주소기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곳,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,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“이번 사물주소 부여대상 대국민 조사는 국민,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소정책에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”이라며,

○ “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 주소정보가 활용되어 사회 곳곳이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는 주소 정책을 추진에 노력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정아 (044-205-3551)
		담당자	주무관	신성심 (044-205-3554)





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발굴을 위한  
**대국민 온라인 투표**

주소가 필요한 곳, 여러분이 투표하세요!

국민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 
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발굴로  
 국민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해 집니다!

\* 사물주소란, 건물이 아닌 공간, 장소, 시설 등의 위치를 찾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



**투표기간** 6월 12일(월) ~ 6월 26일(월), 15일간

---

**투표내용**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선택(5종 선택)

재난·안전

경제·산업

도로·교통

생활·여가

문화·관광

---

**참여방법** 상단의 QR코드를 스캔 후, 온라인 폼으로 투표

---

**참여선물** 참여하신 분들 중 200분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 증정

□ 추진 배경

- 건물 외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 부재로 국민 안전 확보에 한계 및 생활 편의시설 이용에 제약
- 위치안내가 필요한 생활·안전 밀접 사물(장소) 대상, 위치·속성 및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물주소 부여·활용 추진
  - ※ ('19~'22년) 인명구조함, 지진대피소, 전기차충전소 등 14종, 228,706개 사물주소 부여 완료

□ 사물주소의 개념

- (개념 및 표기법)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이 아닌 시설물(장소)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정보
  - 시설물(장소)이 건물등의 밖에 있는 경우

「행정구역명」 + 「도로명」 + 「사물번호」 + 「사물유형명」

※ (예시)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08 육교승강기

- 시설물(장소)이 건물등의 안에 있는 경우

「행정구역명」 + 「도로명」 + 「건물번호」 + 「엽표(.)」 + 「사물번호」 + 「사물유형명」

※ (예시)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천길 42, 201호 비상소화장치

- (대상)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물 중 ①다수가 이용하고, ②갱신체계 확보가 가능하며, ③국민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부여 추진

< 사물주소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>

사례	현재는	앞으로는
<b>A</b> <u>소방관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울역 역사 내 화장실에서 심정지 환자 신고 접수</li> <li>- 복잡한 역사 내 신고자 위치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</li> </ul>	⇒
<b>B</b> <u>전동휠체어 사용자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리 완충하지 못한 전동휠체어, 급속충전이 필요하나,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전전공공</li> </ul>	
<b>C</b> <u>화재 최초 발견자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좁은 골목에서 화재를 목격, 비상소화장치를 찾느라 등분서주</li> </ul>	
<b>D</b> <u>공중전화 관리자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중전화부스의 정확한 주소가 없어 현장 점검 및 관리에 불편</li> </ul>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하철역 개방화장실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</li> <li>• 사물주소 정보를 소방, 경찰에서 활용하여 출동시간 단축</li> <li>• 내 주변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사물주소를 조회하여 충전완료 후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</li> <li>• 내 주변 비상소화장치 사물주소를 조회하여 신속하게 화재 초기 진압에 성공</li> <li>• 공중전화에 부여된 사물주소를 관리번호로 활용, 위치찾기 편의 향상, 현장 점검·관리 용이</li> </ul>